

유아의 대인관계 형성능력에 미치는 정서조절능력과 대인문제해결사고의 영향

박화윤¹, 마지순^{2*}, 김민영³

¹원광대학교 유아교육과, ²거제대학교 유아교육과, ³도담어린이집

The Effect of Emotional Control and Interpersonal Cognitive Problem Solving Ability on Children's Interpersonal Relationship Formative

Wha-Yun, Park¹, Ji-sun, Ma^{2*} and Min-Young, Kim³

¹Dep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Wonkwang University

²Dep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Koje College

³Day Care Center of Do Dam

요 약 본 연구는 유아의 대인관계 형성능력에 정서조절능력과 대인문제해결사고가 어떠한 영향력이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실시되었다. 연구대상은 G광역시 어린이집과 유치원 3곳의 유아 133명이다. 자료의 분석은 t-test, ANOVA, Pearson의 적률상관계,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첫째, 유아의 성별에 따라서는 대인관계 형성능력 전체와 하위요인인 사회적 반응성에서만 여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형제 수와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라서 형제가 1명인 경우, 취업모인 경우가 대인관계 형성능력, 정서조절능력, 대인문제해결사고 모두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둘째, 대인관계 형성능력은 정서조절능력과 대인문제해결사고와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대인관계 형성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정서조절의 자기조절과 타인조절력이었으며, 대인문제해결사고에서는 원인적 사고가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This study was designed to examine the effect of emotional control and interpersonal cognitive problem solving ability on children's interpersonal relationship formative. The subjects were 133 boys and girls who were day care center in G metropolitan city. Data analysed with t-test, ANOV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regression.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children's interpersonal relationship formative according to children's sex.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emotional control and interpersonal cognitive problem solving ability according to their sibling and mother occupation. Second, there were significant correlations between the children's interpersonal relationship formative, emotional control and interpersonal cognitive problem solving ability. Third, the children's interpersonal relationship formative was affected by emotional control and interpersonal cognitive problem solving ability.

Key Words : Emotional Control, Interpersonal Cognitive Problem Solving Ability, Interpersonal Relationship Formative

1. 서론

교육의 새 패러다임은 21세기의 사회구조에서 요구되

는 공동체적 삶의 태도가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유아교육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는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기초 능력을 기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유아기의 대인관계는

본 논문은 2012년도 원광대학교 교내 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되었음.

*Corresponding Author: Ji-Sun Ma

Tel: +82-55-680-1530 email: jisunsky@koje.ac.kr

접수일 12년 10월 23일

수정일 12년 11월 07일

게재확정일 12년 11월 08일

청년기나 성인기의 대인관계 형성의 기저가 되어 성인기의 사회 적응에 큰 영향을 미치며, 성인기 대인관계의 기틀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유아기의 대인관계가 유아들이 겪게 되는 다양한 스트레스 상황을 극복하는데 기여한다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유아의 대인관계 형성능력은 유아교육에서 중요한 연구 주제로 부각되고 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 부모나 형제들과 대인관계가 시작된다. 그러나 현대 가족구조의 변화는 이들과 대인관계형성의 기초를 제공해주지 못하고 있다. 과거의 가족구조는 대가족으로 조부모, 많은 형제자매와 함께 하면서 암묵적으로 자신의 감정이나 행동을 조절하도록 가르침을 받았으며 가족에게 수용되어지는 것이 곧 사회에서 수용되어지는 행동이라고 생각하여도 무리가 없었다[18]. 반면 최근의 가정은 대부분 핵가족이며, 취업모의 증가 및 자녀수 감소로 많은 가족들과 함께 관계 맺음을 배울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는 유아교육 현장에서 유아가 타인과의 관계에서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중요하게 대두되었으며, 유아의 대인관계 형성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들을 중요한 과제로 여기게 되었다[9].

대인관계는 개인들이 정기적인 접촉으로 인하여 정서적 결속이나 연계를 형성하는 것으로[19] 사람과 상호작용하는 것을 가리키며, 개인이 타인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는지를 지각하고 관계 맺는 행동이다. 대인관계능력이란 다른 사람을 대하는 내적 성격과 외적 행동성을 포함하는 것으로 타인의 감정을 느끼고 그에 대한 나의 감정을 인식한 후 자신이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최선인지 이해하고 실제 행동으로 실천에 옮길 줄 아는 능력으로 타인의 관점에서 자신의 행동기준을 설정함으로써 협동적이고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능력을 의미한다[14].

그러므로 대인관계 형성 능력이 유능한 사람은 타인의 감정을 상하지 않도록 배려하여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계속적으로 유지하며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일련의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듯 대인관계 형성은 개인이 자신에게 일어나는 정서를 지각하고, 의미를 파악하여 상황에 적절하게 반응하고 대처할 때[11]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자신의 정서를 조절하는 것은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정서반응, 특히 강력하고 일시적인 특징이 있는 정서반응을 검색하고 평가하고, 수정하기 위한 내외적 과정[23]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자신의 정서에 대한 인식의 과정을 거친 후 정서에 대한 조절 가능성을 평가하는 것부터 실제 인지적, 행동적 조절전략을 사용해 그 반응결과를 얻게 되기까지의 복잡한 일련의 과정이기도 하다[12]. 즉, 정서조절은 정서를 외현

적으로 표출하는 기저가 되며, 대인관계 형성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정서조절이 근간이 되고 인간관계에서 필요한 정서적 지지와 정서적 공유가 형성되면 대인관계를 잘 형성할 수 있는 것이다 [4]. 특히 또래와의 상호작용이 활발해지는 유아기는 그 기초를 형성해 나가는 초기 단계로서 유아는 자신의 정서조절을 통해 타인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정서표현을 학습하게 되며 상황에 따라 표현하거나 또는 표현해서는 안 되는 정서표현에 대한 규칙을 습득하여 대인관계 형성능력을 발달시킬 수 있을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대인문제해결사고는 사회적 적응에 핵심요소이며, 대인관계에서 비롯된 문제와 갈등을 해결해 가는 사고과정이다. 유아들이 타인과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유아의 대인문제 해결능력은 일방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고보다는 다른 사람의 입장을 고려하는 상호적 사고가 강조되어진다. 대인관계형성을 위해서는 또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와 갈등을 해결하고자 일련의 수단이나 방법을 강구하여 효율적으로 해결하려는 인지과정인 대인문제를 해결하는 사고이다[22].

유아기에 형성된 대인관계 형성능력은 일생을 거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여러 연구에서 관련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9]. 반면 유아기의 대인관계 형성능력에 대한 연구는 대인관계 형성능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부모와의 애착유형, 사회적지지, 사회인구학적변인, 부모조망능력, 유아대처반응 및 정서지능 등[1,6,9]에 관한 연구와 대인관계 형성능력을 증진시키는 연구가[18] 이루어져왔을 뿐 대인관계 형성에 대한 개인내외적인 변인의 영향을 본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유아의 대인관계 형성능력에 정서조절 능력과 대인문제해결사고가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알아보고 이를 통해 유아의 대인관계 형성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 유아의 대인관계 형성능력, 대인문제해결사고, 정서조절능력은 유아의 개인변인(성별, 형제 수, 모의 취업)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2. 유아의 대인관계 형성능력과 정서조절능력 및 대인문제해결사고의 관계는 어떠한가?
3. 유아의 대인문제해결사고와 정서조절능력이 대인관계 형성능력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떠한가?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G광역시 유치원과 어린이집 각각 3곳에 재원 중인 만 5세 유아 133명으로 원장의 연구승인을 받아 교사에게 설문지를 150부를 배부하였으나 이중 불성실한 응답의 17부를 제외한 133부를 최종 연구 자료로 사용되었다. 본 연구 대상으로 선정된 유아의 배경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의 일반적 배경
[Table 1] Background of Subject

배경변인	구분	사례 수(N)	빈도(%)
성별	남아	62	46.6
	여아	71	53.4
출생순위	첫째	50	37.6
	둘째이상	18	13.5
	막내	56	42.1
	외동	9	6.8
형제 수	0명	9	6.8
	1명	26	19.5
	2명이상	98	73.7
모 취업	취업	83	62.4
	비 취업	50	37.6

2.2 검사도구

1) 대인관계 형성능력 검사도구

유아의 대인관계 형성능력은 NICHD Early Child Care Research Network(1996)에 의해 개발된 'Social Competence' 척도를 재구성하여 사용한 김성민(2009)의 대인관계 형성능력 척도를 사용하였다. 대인관계 형성능력은 관계형성하기 2문항, 사회적 반응성 11문항, 지시 따르기 9문항, 긍정적 상호작용 7문항으로 구성되었다.

2) 정서조절능력 검사도구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Goleman(1995), Saarni(1990), Salovey와 Mayer(1990)의 정서지능 척도를 수정하여 사용한 조인영(2007)의 유아 정서조절능력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유아 정서조절능력은 타인 조절능력 9문항과 자기조절능력 8문항으로 총 17문항이며, 하루 일과 속에서 유아를 관찰 한 후 정서조절능력과 관련한 유아의 특정행동 빈도를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3) 대인문제해결사고 검사도구

유아의 대인문제해결사고를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Spivack, Platt와 Shure(1976)의 Interpersonal Cognitive Problem Solving(ICPS) 검사를 토대로 박찬옥

(1986)이 제작한 대인문제해결사고검사를 유아교육기관에서 유아또래 대상으로 한 검사를 실시한 최효정(2011)의 도구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대인문제해결사고는 대안적해결사고, 결과예측사고, 원인적사고, 수단목적사고 4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었다.

2.3 연구절차

먼저 검사도구의 적절성과 소요시간을 알아보기 위해 정서조절능력 및 대인관계형성 능력 도구를 본 연구의 대상이 아닌 교사 5인을 대상으로 예비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용 이해 및 측정에 어려움이 없고 소요시간은 10분 정도 소요되었다. 대인문제해결사고 검사는 본 연구 보조자 1인 훈련을 위해 도구에 대한 내용 및 검사방법을 설명하고 본 연구 대상이 아닌 5인 유아를 대상으로 일치도를 알아본 결과 본 연구자와 일치 하였다. 본 연구는 담당 학급교사에게 정서조절능력 및 대인관계형성 능력에 대한 도구를 직접방문에 의해 배부하고 검사방법을 설명한 후 완성한 도구를 회수하였다. 회수된 질문지의 유아를 대상으로 대인문제해결사고 검사는 기관의 독립적인 공간에서 유아와 검사자간 일대일 면접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검사자는 먼저 유아와 친밀감을 형성하고 해당하는 그림카드를 보고 유아의 생각을 자유롭게 말하는 방식으로 그림카드를 제시하며 진행되었다. 연구자는 검사도구에 기록된 각각의 하위요인별 문항 내용을 유아에게 질문하고 유아가 반응한 해결방안을 대인문제해결사고 기록지에 기록하였다. 유아는 질문내용에 대하여 최고 5회까지 반응할 수 있으며 한 유아 당 소요되는 시간은 20~30분이었다.

2.4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SPSS Win 19.0 에 의해 실시하였다. 유아의 개인변인의 차이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고 *t*-test, ANOVA 분석을 하였으며, 대인관계 형성능력, 정서조절능력, 대인문제해결사고의 관계는 Pearson의 적률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대인관계 형성능력에 대한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개인변인에 따른 대인관계 형성능력, 정서조절능력, 대인문제해결사고의 차이

3.1.1 성별차이

성별에 따라 대인관계 형성능력, 정서조절능력, 대인

문제해결사고를 성별에 따라 살펴본 결과(표 2) 대인관계 형성능력에서만 차이가 나타났다. 대인관계 형성능력은 남아($M=2.97$, $SD=.57$) 보다 여아($M=3.23$, $SD=.59$)가 의미있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2.56$, $p<.05$). 특히, 하위 영역인 사회적 반응성에서 남아($M=2.89$, $SD=.71$)보다 여아($M=3.27$, $SD=.67$)가 의미있게 높게 나타났다($t=-3.24$, $p<.01$). 유아의 정서조절능력과 대인문제해결사고에서는 성별에 따라 차이가 없었다.

[표 2] 성별에 따른 차이

[Table 2] Difference of Sex

영역		성별 M(SD)		t
		남(n=62)	여(n=71)	
대인 관계 형성 능력	관계형성하기	3.13(.75)	3.18(.74)	-36
	사회적반응성	2.89(.71)	3.27(.67)	3.24**
	지시따르기	3.05(.64)	3.27(.70)	-1.88
	긍정적상호작용	2.96(.61)	3.13(.67)	-1.54
	전체	2.97(.57)	3.23(.59)	-2.56*
정서 조절 능력	타인조절	3.61(.66)	3.76(.75)	-1.19
	자기조절	3.15(.77)	3.40(.91)	-1.69
	전체	3.40(.65)	3.59(.74)	-1.60
대인 문제 해결 사고	대안적해결사고	.34(.18)	.39(.20)	-1.61
	결과예측사고	.47(.22)	.45(.18)	.58
	원인적사고	.30(.16)	.31(.16)	-.37
	수단목적사고	.39(.21)	.39(.19)	.14
	전체	.37(.15)	.38(.13)	-.39

* $p<.05$, ** $p<.01$

3.1.2 형제 수에 따른 차이

형제 수에 따라 대인관계 형성능력, 정서조절능력, 대인문제해결사고를 살펴본 결과(표 3), 유아의 형제 수에 따라 정서조절능력, 대인문제해결사고의 전체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의 형제 수에 따른 대인관계 형성능력은 전체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지만 관계형성하기에서 형제가 1명인 경우($M=3.54$, $SD=.51$)가 유의미한 수준에서 가장 높았다($F=4.84$, $p<.01$).

정서조절능력 전체에서는 형제가 1명인 경우($M=3.81$, $SD=.66$)으로 의미있게 높았으며($F=3.83$, $p<.01$), 타인조절에서도 역시 형제가 1명인 경우($M=4.11$, $SD=.59$)가 가장 높았으며 의미있는 수준이었다($F=6.89$, $p<.01$).

대인문제해결사고에서는 전체($F=10.16$, $p<.001$)와 하위요인인 수단목적사고에서만 의미있는 차이가 없었고 대안적해결사고($F=5.54$, $p<.01$), 결과예측사고($F=7.95$,

$p<.01$), 원인적사고($F=9.45$, $p<.001$)에서 모두 형제가 1명인 경우가 가장 높았으며 의미있는 수준이었다.

[표 3] 형제 수에 따른 차이

[Table 3] Difference of sibling

영역		형제 수 M(SD)			F
		0명 (n=9)	1명 (n=26)	2명이상 (n=98)	
대인 관계 형성 능력	관계형성 하기	2.89 (.65)	3.54 (.51)	3.08 (.77)	4.84**
	사회적 반응성	2.83 (.69)	3.09 (.75)	3.12 (.71)	.68
	지시 따르기	2.81 (.72)	3.38 (.69)	3.14 (.66)	2.64
	긍정적 상호작용	2.78 (.57)	3.19 (.62)	3.04 (.66)	1.40
	전 체	2.82 (.59)	3.23 (.59)	3.10 (.60)	1.69
	타인조절	3.30 (.83)	4.11 (.59)	3.62 (.69)	6.89**
정서 조절 능력	자기조절	3.08 (.80)	3.48 (.90)	3.25 (.85)	.97
	전 체	3.20 (.75)	3.81 (.66)	3.45 (.69)	3.83*
	대안적 해결사고	.29 (.20)	.47 (.26)	.34 (.16)	5.54**
대인 문제 해결 사고	결과예측 사고	.31 (.25)	.58 (.19)	.44 (.19)	7.95**
	원인적사 고	.24 (.17)	.42 (.23)	.28 (.12)	9.45***
	수단목적 사고	.33 (.14)	.45 (.24)	.38 (.19)	1.84
	전 체	.29 (.14)	.48 (.19)	.36 (.11)	10.16***

* $p<.05$, ** $p<.01$, *** $p<.001$

3.1.3 어머니의 취업유무에 따른 차이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라 대인관계 형성능력, 정서조절능력, 대인문제해결사고를 살펴본 결과(표 4), 대인관계 형성능력, 정서조절능력, 대인문제해결사고는 모두 의미있는 차이가 있었다.

대인관계 형성능력($M=3.24$, $SD=.55$), 정서조절능력($M=3.64$, $SD=.67$), 대인문제해결사고($M=.42$, $SD=.14$) 전체에서 모두 취업모의 유아가 의미있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3.42$, 3.04 , 4.81). 하위요인에서도 대인관계 형성능력 중 사회적반응성($M=3.18$, $SD=.68$)을 제외하고 모두 취업모의 유아들이 높게 나타났다.

[표 4] 취업유무에 따른 차이

[Table 4] Difference of Working and Nonworking Mother

영역		취업 M(SD)		t
		유(n=83)	무(n=50)	
대인 관계 형성 능력	관계형성하기	3.28(.71)	2.95(.76)	2.50 [*]
	사회적반응성	3.18(.68)	2.94(.75)	1.92
	지시따르기	3.29(.63)	2.96(.71)	2.75 ^{**}
	긍정적상호작용	3.26(.55)	2.70(.64)	5.33 ^{***}
	전체	3.24(.55)	2.89(.61)	3.42 ^{**}
정서 조절 능력	타인조절	3.84(.63)	3.44(.78)	3.05 ^{**}
	자기조절	3.41(.82)	3.07(.88)	2.26 [*]
	전체	3.64(.67)	3.27(.70)	3.04 ^{**}
대인 문제 해결 사고	대안적해결사고	.40(.20)	.30(.16)	3.07 ^{**}
	결과예측사고	.50(.20)	.39(.19)	3.33 ^{**}
	원인적사고	.34(.17)	.24(.12)	3.97 ^{***}
	수단목적사고	.44(.21)	.30(.15)	4.23 ^{***}
	전체	.42(.14)	.31(.11)	4.81 ^{***}

* $p<.05$, ** $p<.01$, *** $p<.001$

3.2 대인관계 형성능력, 정서조절, 대인문제해결사고의 관계

대인관계 형성능력과 정서조절, 대인문제해결사고의 관계를 알아본 결과(표5), 정서조절능력($r=.66$, $p<.01$)과 대인문제해결사고($r=.29$, $p<.01$) 전체는 대인관계 형성능력과 정적상관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정서조절 하위영역인 타인조절($r=.58$, $p<.05$)과 자기조절($r=.60$, $p<.01$)은 대인관계형성 능력과 정적인 상관이 의미있는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대인문제해결사고에서는 결과예측사고($r=.13$ $p>.01$)를 제외한 대안적 해결사고($r=.27$ $p<.01$), 원인적 사고($r=.31$ $p<.01$), 수단목적사고($r=.19$ $p<.05$)와 정적상관이 의미 있게 나타났다.

[표 5] 유아의 대인문제해결사고, 정서조절능력, 대인관계형성능력 간의 관계

[Table 5] Correlations among Emotional Control, Interpersonal Pognitive Problem Solving Ability and Children's Interpersonal Relationship Formative

영역	대인관계 형성능력				
	관계형성하기	사회적반응성	지시따르기	긍정적상호작용	전체
정서조절	타인조절	.39**	.45**	.54**	.58**
	자기조절	.24**	.68**	.41**	.47**
	전체	.35**	.63**	.52**	.58**

대인문제해결능력	대안적해결사고	.12	.22**	.20*	.34**	.27**
	결과예측사고	.20*	.03	.12	.21*	.13
	원인적사고	.29**	.18*	.33**	.32**	.31**
	수단목적사고	.08	.11	.14	.31**	.19*
	전체	.22*	.18*	.25**	.39**	.29**

* $p<.05$, ** $p<.01$

3.3 대인관계 형성능력에 대한 정서조절, 대인문제해결사고의 영향력

대인관계 형성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정서조절능력, 대인문제해결사고의 영향력을 알아본 결과(표 6), 대인관계형성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정서조절력은 타인조절($\beta=.34$, $p<.001$), 자기조절($\beta=.39$, $p<.001$)이 대인관계형성 능력에 정적 영향을 미치며 대인관계 형성능력에 대해 43%의 설명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대인문제해결사고력은 원인적사고($\beta=.24$, $p<.05$)가 대인관계형성능력에 정적 영향을 미치며, 대인관계형성능력에 대해 12%의 설명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유아의 대인문제해결사고와 정서조절능력이 대인관계형성능력에 미치는 영향

[Table 6] Influential Factors on Children's Interpersonal Relationship Formative

변인		B	β	t
정서조절	타인조절	.28	.34	4.00***
	자기조절	.27	.39	4.61***
상수= 1.17		F= 48.77***	R ² = .43	
대인문제해결력	대안적해결사고	.50	.16	1.62
	결과예측사고	-.15	-.05	-.54
	원인적사고	.88	.24	2.25*
	수단목적사고	.10	.03	.33
상수= 2.69		F= 4.17**	R ² = .12	

* $p<.05$, ** $p<.01$, *** $p<.001$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유아의 대인관계 형성능력에 대한 정서조절 능력과 대인문제해결사고의 영향력을 알아보고자 하였으며 연구결과를 토대로 논의를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의 성별에 따라서는 대인관계 형성능력의 하위요인인 사회적 반응성에서만 여아가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형제 수는 형제가 1명인 경우가, 어머니가 취업 모인 경우가 대인관계 형성능력, 정서조절능력, 대인문제 해결사고 모두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차이가 대인관계형성능력 전체와 사회적 반응성에서만 여아가 높게 나타난 것은 여아의 대인관계 형성능력이 남아보다 높았던[9]의 연구와 유사한 맥락이지만 정서조절과 대인문제해결사고에서 성차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여아가 남아보다 친사회적으로 행동한다는 연구결과들[21]과는 상반되는 연구로 성별의 차이가 없음을 지지하는 연구[22]들과 같은 맥락이다. 형제가 1명일 경우에 대인관계 형성능력, 정서조절능력, 대인문제해결사고가 높았던 연구결과는 사회성발달에서 형제유무에 따라 대인 적응면에서 차이가 나타났다는[15] 연구결과와 유사한 맥락이다. 이는 형제와의 상호작용은 동료애, 도움 또는 정서적 지지의 원천이 되어 사회적 기술을 획득하여 사회성 발달을 이룰 수 있다는 [20]의 입장을 지지해주는 결과이다. 그러나 대인관계형성능력이 형제유무와 관련이 없었던 [9]의 연구와 형제 2명일 때 대인문제해결사고가 높았던 연구[15]와는 상반되는 결과이다. 따라서 형제가 2명 이상일 때 출현하는 사회적 행동에 대한 추후연구가 요구된다.

현대사회의 변화로 인한 취업모의 증가는 유아의 발달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 중의 하나이다. 본 결과는 어머니의 취업이 유아의 사회성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10]와 유사한 맥락이지만 취업모가 대인관계 형성능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9]의 연구와는 대치되는 결과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취업모와 유아 사회성발달의 관련성을 밝혀야 하는 추후연구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둘째, 정서조절능력과 대인문제해결사고는 대인관계 형성능력과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인관계 형성능력이 높을수록 정서조절능력과 대인문제해결사고가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는 정서조절능력이 다른 사람과의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데 사용되는 일종의 대인관계능력이라고 보았던 입장을[5] 지지해주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의 대인문제해결사고는 대인관계에서 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략 또는 방안을 탐색하는 사고과정으로서 일방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고보다는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는 상호적 사고가 강조되므로[14] 대인문제해결사고가 높으면 대인관계형성능력이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대인관계 형성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정서조절의 자기조절과 타인조절력이었으며, 대인문제해결사고에서는 원인적 사고가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정서를 조절하는 능력을 가진 아동이 또래에 의해 더 많이 수용되고 원만한 또래 관계를 형성하게 되어[8] 대인관계형성능력이 높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정서조절의 실패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어긋나게 만들기[1] 때문에 정서를 잘 조절하는 기술은 대인관계형성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을 지지해주는 결과이다. 그러므로 대인관계 형성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에서는 타인의 정서와 자신의 정서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적절하게 조절하여 표현할 수 있는 교육적 경험을 제공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대인관계형성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원인적 사고는 다른 사람의 행동에 대해 그 동기나 원인을 추론해내는 사고능력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원인적 사고는 유아가 대인관계 형성 시 다른 사람의 감정을 상하지 않도록 하며 다른 사람과 관계를 지속하기 위한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위의 논의를 토대로 결론을 내리면 첫째, 여아가 남아보다 대인관계 형성능력 특히 사회적 반응성에서 더 높으며, 형제가 1명이고 취업모를 가진 유아들이 대인관계 형성능력, 정서조절능력, 대인문제해결사고가 높다. 둘째, 정서조절능력과 대인문제해결사고는 대인관계형성능력과 정적상관이 있다. 셋째, 대인관계 형성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정서조절의 자기조절과 타인조절력이었으며, 대인문제해결사고에서는 원인적 사고가 정적인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의의는 유아의 대인관계 형성능력의 중요성에 비해 아직 미흡한 연구를 실행했다는 데 있으며, 대인관계 형성능력 증진을 위한 교육프로그램과 교수학습 방법을 개발하는데 유용한 기초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을 토대로 추후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교사가 유아의 대인관계 형성능력, 정서조절을 평정하였다. 교사의 객관적인 평정이 이루어졌으리라 사료되지만 관찰보고서나 교사면접 등의 다양한 기록물을 활용한 객관적인 평가를 위한 다양한 방법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대인관계 형성능력에 대한 선행연구가 부족하여 연구결과를 다양하게 논의하기 어려웠고 대인관계형성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들(예를 들면 놀이참여 수준, 사회적 능력, 신체발달- 다루어진다)면 유아의 대인관계형성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될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정서조절능력과 대인문제해결력을 활용한 대인관계 형성능력 증진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에 관한 추후연구가 요구된다.

References

- [1] Bridges, L. J. & Grolnick, W. S. The development of emotional self-regulation in infant and early childhood. In Eisenberg(Ed.), *Review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4. *Social development*, 185-211. Thousand Oak CA, Sage. 1994.
- [2] Cho, I. Y. The effect of mother' parenting attitudes and children' emotional competence: An analysis of structural relationships and explanatory variabl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n Yang University, Seoul, Korea. 2007.
- [3] Choi, H. J. A Study on the Impac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Participation Program of Children in Grade3 on the Infant Self-leadership and Interpersonal Problem Solving. 2011.
- [4] Emmons, R. A. & Colby, P. Emotional conflict and wellbeing: Relation to perceived availability diary utilization abd observe reports of social suppor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8(5), 947-959. 1995.
- [5] Goleman, D. *Emotion intelligence*. New York: Bantam Books. 1995.
- [6] Han, E. G. Emotion regulation as a predictor of aggression and peer relationships in school-age children.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26(4), 85-100. 2005.
- [7] Hinnant, J. B., & O'brien, M. Cognitive and emotional control and perspective taking and their relations to empathy in 5-year-old children. *The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68(3), 301-322. 2007.
- [8] Hubbard, J., & Coie, J. D. Emotional correlates of social competence in children's peer relationships, *Merill-Palmer Quartely* 40, 1994.
- [9] Kim, S. M. A structural model analysis of variable affecting children's interpersonal relationship formative competenc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Ducksung Women's University. University, Seoul, Korea. 2009.
- [10] Kook, J. Y. Preschool Children's Language ability social competence.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1996.
- [11] Lee K. H., & Kim, B. H. Interpersonal ability: comparison of clusters by emotional clarity, affect intensity, and emotional regulation style.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22(2), 369-384. 2010.
- [12] Lee, S. J. Emotional awareness,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and mental health.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ang university. 2006.
- [13] NICHD. Character of infant child care: Factor contributing to positive caregiving.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11, 269-306. 1996.
- [14] Park, C. O. Change of young children's interpersonal cognitive problem solving skills through relation-focused educational activity, *The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for lea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The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the study of teacher education*. 12(5), 157-178. 2008.
- [15] Park, J. Y. The relationship of peer competence with young children's sibling relationships and interpersonal problem solving abiliti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eimyung University. 2008
- [16] Saarni, C. Psychometric properties of the parental attitude toward childrens expressiveness scale(PACES). Unpublished manuscript, Sonama State University. (ERIC Document Reproduction Service No ED 317-301). 1990.
- [17] Salovey, P., & Mayer, J. D. Emotional intelligence. *Imagination, Cognition, and Personality*, 9, 185-211. 1990.
- [18] Seo, J. D. A study of how the role play through a story telling affects infants' self-control and ability of personal relations forma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 Hee University. 2004.
- [19] Shure, M., & Spivack, G. Interpersonal cognitive problem solving as a mediator of behavioral adjustment in preschool and kindergarten children,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2, 89-94. 1980.
- [20] Siddiqui, A. A., & Ross, H. S. How do sibling conflicts end. *Early Educational and Development*, 10(3), 315-332. 1990.
- [21] S, H. Y., & Jung, A. O.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ather's Emotional Expressiveness, Verbal Controls and Children's Social Competency.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5(4), 87-96. 2007.
- [22] Spivack, G., Paltt, J., & Shure, M. The problem-solvingapproachto adjustment: A guide to research and intervention.San francisco. Jossry-Bass. 1976.
- [23] Thompson, R. A. Emotional regulation: A theme in search of definition. In. N. A. Fox(Ed.), *The development of emotion regulation: Biological and behavioral considerations*. *Monograph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9(2-3, Serial No 240, pp.25-52). Chicago: University if Chicago Press. 1994.

박 화 윤(Wha-yun Park)

[정회원]



- 1992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교육학과 유아교육 (박사)
- 1985년 3월 ~ 현재 : 원광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관심분야>

유아놀이, 부모교육, 유아교육기관운영관리

마 지 순(Ji-Sun Ma)

[정회원]



- 2001년 2월 : 한국교원대학교 유아교육과(교육학석사)
- 2004년 2월 : 원광대학교유아교육과(문학박사)
- 2009년 3월 ~ 현재 : 거제대학교 유아교육과 조교수

<관심분야>

유아 교사교육, 유아의 사회, 정서발달, 부모교육

김 민 영(Min-Young Kim)

[정회원]



- 2011년 3월 ~ 현재 : 원광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 2012년 3월 ~ 현재 : 도담어린이집 원감

<관심분야>

유아 사회 정서 발달, 유아놀이